

2025 계절학기 고전읽기

2025.06.23

교양대학 유시현

‘고전읽기’를 수강하는
이유???



교양 필수(필수교양)
과목이니까

왜 '고전읽기'가 교양
필수 일까???



중요하니까? 무엇이?
독서가??? 왜?

고전읽기를 통해 우리는

독서·발표 토론토의 표현(글쓰기)
의 통합 활동을 통해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비판적창의적 사고력과
민주적 의사소통능력을 기를 수
있다.

고전읽기를 통해

다양한 학제 간 고전읽기를 통해
고금과 동서양을 관통하는 글로벌
시민 정신(**글로벌** 역량)과 융합적
사고력을 기른다.

* **glocal = global + local**

고전읽기 수업의 목적 1

1. 책 잘 읽기, 또 잘 읽을 수 있기
2. 읽은 거 말로 잘 표현하기
3. 읽은 거 글로 잘 표현하기
4. 읽은 거 함께 잘 이야기 하기

고전읽기 란???

- 고전읽기 → 현대읽기 → 지금을 알기
- 고전읽기로 비판적이고 통합적인 사고력 육성
- 세계화 시대 국제인으로서 역량강화, 시민의식 함양
- 현 시대 흐름에 맞춘 고전읽기로 국가 및 국제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생각 연습
- 고전의 통독과 문헌에 근거한 발표, 토론과 글쓰기로 학생의 표현력을 증대

◆ 도서준비 (6월25일까지 준비)

Brave
New World

멋진
신세계



tvN **책읽어드립니다**

요즘 **책방**

책읽어드립니다

방송도서

매주(화) 저녁 8시 10분
tvN 방송

번역의 대가 안정효의 최신 완역판, 독점 출간

올더스 헉슬리 지음 | 안정효 옮김

소담출판사



올더스 헉슬리 지음

/ 안정효 옮김,

『멋진 신세계』

소담출판사, 2015년

E-BOOK 도 가능

◆ 성적평가 기준 ◆

출석	과제 (현장퀴즈 독서노트)	임의	중간시험	기말시험	합계
20%	30%	10%	15%	25%	100%

고전읽기 평가방법은 상대평가

◆ 성적평가 기준 설명 ◆

1) 출석 20점

- 결석 1회는 감점 2점 / 지각 1회는 감점 0.5점
- 1/3 이상 결석 시 F 학점
- 총 15회 수업시간 중 5회 이상 결석 시 성적부여불가
- 공결은 1번 만 허용(병결은 별도), 동점일 경우 공결자가 차순위
- 주의사항: 결석 사전통보, 지각 주의

2) 시험: 중간시험 15점 - 제시된 주제에 관한 현장 에세이 제출 기말시험 25점 - 필기시험

3) 과제 (독서퀴즈, 독서노트) 30점

- 수업시간 독서퀴즈 실시와 독서노트 LMS 사전 업로드

4) 임의평가 10점 : 팝 퀴즈 , 영상퀴즈 수업태도, 조별태도 등 수업태도불량, 자세 불량은 감점

◆ 수업방식 ◆

- 1) 도서 지정부분을 현장에서 정독
- 2) 정독 후 요약 노트 작성해보기
- 3) 배부된 용지 반-1 페이지 작성
- 4) 독서노트 작성 후 주어진 문제 토론

◆ 독서퀴즈 관련 안내사항 ◆

- 1) 도서 지정부분 정독 후 현장 독서 퀴즈
- 2) 꼭 읽어야만 알 수 있는 내용의 현장 퀴즈
- 3) 수업 시작 전 실시

수업 관련 당부

수업에서 해당하는 영역을 잘 읽어야 퀴즈를 풀 수 있다.

독서노트 제출 과제가 있을 시 반드시 수업 전 마감시간 전에 LMS에 업로드 한다.

수업에서 해당하는 영역을 반드시 읽어와야 조별 토론이 가능하다.

지각하지 않아야 이미 토론을 시작한 각 조원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는다.

토론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휴대폰을 보지 않는다. 각 조원의 평등한 활동을 통하여 무임승차를 방지한다.

질문하고 싶어요& 수업 공지사항 확인해요



고전읽기 205분반
2025년 1학기



수업 계획서



공지



강의자료실



게시판



주차학습



과제 및 평가



시험 및 설문



토론

공지사항
메세지함
게시판
활용하기

◆ 오늘은,,,

- 발췌문헌으로 요약문 작성
- 모듬 구성

남한과 북한은 붙어 있지만, 선진국과 저개발국의 극명한 차이를 드러낸다. 남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미국의 3만2,000달러에 육박하며 유럽연합 평균에도 크게 뒤쳐지지 않는다. 남한은 또 특별한 나라에만 문호를 개방하는 OECD의 일원이다. 그만큼 경제 성과를 인정받고 있고, 삼성, 현대, LG 등 한국산 유명 브랜드 제품을 세계가 기꺼이 소비한다. 반면 북한은 1인당 소득이 1,800달러에 그쳐 케냐 등 그나마 성공했다 할 수 있는 아프리카 국가나, 방글라데시와 같은 가난한 남아시아 국가와 다를 바 없다. 북한산 제품을 사려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다. 남한의 평균 수명은 북한보다 10년이 더 길다. 심지어 북한 주민은 늘 기아의 위협에 시달린다. 남북한의 이런 차이는 온갖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한국인이자면 누구나 이런 차이가 어디서 비롯되는지 분명히 알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문화, 사회, 정치적으로 오랜 단일민족의 역사를 자랑하던 한반도는 두 동강이 나고 말았다. 북쪽은 먼저 소련의 입김에 휘둘리더니 이내 중국의 영향권에 놓여, 사유재산권과 시장을 철폐하고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수립했다. 미국과 연합국의 통제를 받은 남한은 시장경제를 세웠다. 남북한이 이처럼 경제적으로 다른 길을 걸은 연원은 분명하다. 남한에서는 경제적 삶을 지배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규칙인 경제체도가 국민의 저축과 투자, 혁신을 보상해준 반면, 북한은 그렇지 못했다. 양측 모두 중앙집권화의 역사를 통해 성장이 가능했지만, 원래 그런 권력이란 좋게도 쓰이지만 나쁘게도 쓰이는 법이다. 남한은 박정희 정권하에서 수출과 혁신을 장려하고 공공재를 제공했지만, 북한은 탄압과 통제를 위해 권력을 휘둘렀을 뿐이다. 한국은 재능과 혁신, 창의성에 보답하는 경제를 수립한 덕분에 제조업 부문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위치에 올랐지만, 북한은 그렇지 못하다. 남한은 ‘경제 기적’을 이루었지만, 북한은 ‘경제 재앙’을 초래했을 뿐이다.

◆ 요약노트 1

1. 이 글은 결국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간략히 요약 하시오.(2-3줄)
2. 이 글의 제목을 정한다면?
3. 이 글의 앞에 나와야 하는 내용과 뒤에 나와야 하는 내용이 있다면 어떤 내용일까 유추해보자.

◆ 팀 구성

- 1조:
- 2조:
- 3조:
- 4조:
- 5조:
- 6조:
- 7조:
- 8조:
- 9조
- 10조
- 11조
- 12조
- 13조
- 14조